

마이 페이버릿 앨리스

롯데갤러리 청량리점은 5월 2일부터 26일까지 '마이 페이버릿 앨리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전세계 앨리스들' 展을 개최한다. 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 150년의 일러스트와 출판의 역사, 시대별 문화까지 다루어낸다. 1986년 미국 초판본을 비롯해 100여 권의 책과 팝업북, 사진책, 일러스트, 관련 빈티지 인형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오늘날의 인형작가와 디자이너가 새롭게 해석한 앨리스도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인터넷미널점에서 열렸던 전시를 청량리점에서 이어가는 것이다.
문의 (02)3707-2890 www.lotteshopping.com



Take Me Home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는 5월 26일까지 '테이크 미 홈(Take Me Home)'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5개 팀 소쇼(Sosho), 아티스트 프루프(Artist Proof), 팩(Pack), 팩토리 2(Factory 2), 카스코(Casuko)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미술작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고안한다. 작품 구입의 높은 진입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작품의 전시방법과 유통방안을 새로이 제안한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작품을 소비하는 경험으로 확장된 새로운 전시관람을 공유하고자 한다.
문의 (02)6929-4470 www.platform-l.org



Shining Mud

313아트프로젝트에서 플로리안과 미카엘 키스트르베르 형제(Florian&Michael Quistrebert)의

전시 'Shining Mud'를 선보인다. 작가는 캔버스 위로 모델링 페이스트를 붓고 차량용 코팅제를 바르는 방식을 취한다. 이후 2016년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작업하며 캔버스 위에 페이스트를 덧입히고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패턴을 기하학적으로 조형해 왔다. 작품 특유의 시각적 울림은 관객의 사유의 폭을 확장시키며, 해석이 아닌 혼란과 희열을 경험하게 만든다. 전시는 5월 18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2)3446-3137 www.313artproject.com



영화의 얼굴

5월 9일까지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에무에서 '영화의 얼굴 - 수집가 양해남의 한국 영화 포스터 컬렉션' 展이 열린다. 독보적인 영화자로 수집가 양해남이 그동안 수집해 온 한국영화 포스터 약 24점을 선보인다. 그가 소장한 2,400여 점 중 1,500여 점이 유일본이거나 희귀본이다. 이번 전시는 양해남이 지난 30년간 전국을 누비며 모은 영화자료를 서울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리이다. 지난 한국영화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꼼꼼한 영화 아카이빙을 통해 과거 기록의 빈약함을 해소한다.
문의 (02)730-5514 www.emuartspace



린 마이어스 개인전

독특한 국내외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소개하는 갤러리 제이슨함이 2019년 첫 개인전으로 'linn meyers: Rings of Saturn' 展을 선보인다. 린 마이어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점과 선, 색을 사용해 평면을 채워 나간다. 가장 기본적인 예술의 질료는 작가의 손을 통해 응용되고 반복되며, 응집되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혼돈스럽고 불안정하지만 철저히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작품에서 작가의 무의식적 패턴이나 체계적 질서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전시는 5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70-4477-7880 www.jasonhaam.com



임영균 개인전

이길이구 갤러리(2Gil29 Gallery)는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임영균 개인전: 백남준, 여기 지금' 展을 개최한다. 임영균은 한국화단의 1세대 작가로, 현상 너머의 본질을 담으며 시대를 읽어낸다. 임영균은 백남준과 20년 동안 예술가로서 함께했으며, 이번 전시에는 이러한 임영균의 작가적 눈으로 바라본 백남준의 연대기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또한 백남준이 직접 드로잉한 편지와 작품실제, 원고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이 깃든 사진을 통해 인간 백남준을 더욱 가깝게 조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02)6203-2015 www.2gil29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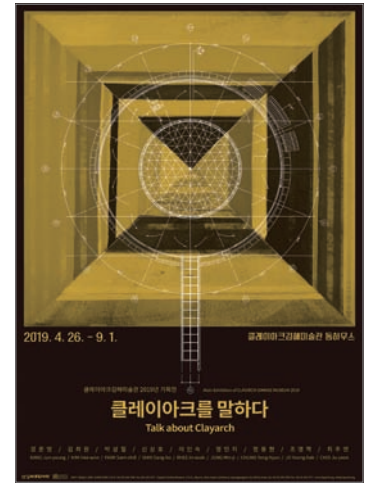


클레이아크를 말하다

국내 유일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2019년 상반기 기획전 '클레이아크를 말하다' 展을 개최한다. 9월 1일까지 클레이아크(Clayarch)를 주제로 한국 작가 9명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건축도자 분야를 일궈 온

도예가 신상호를 필두로 강준영 등이 참여하고, 작품을 통해 고유한 예술언어와 심미안, 표현방식으로 제작한 '클레이아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전시는 예술과 인간의 삶을 밀접하게 통합시키는 영역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문의 (055)340-7000 www.clayarch.org



그린 그린 그림

이우진갤러리는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김해나, 전병구, 임소담 세 작가의 전시 '그린 그린 그림'을 개최한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의 기억과 일상 풍경을 담아낸 약 70여 점의 평면회화와 드로잉, 세라믹 등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해나 작가는 섬세한 감성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임소담 작가는 회화와 세라믹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그려낸다. 전병구 작가는 일상의 특별한 순간을 서정적인 회화로 선보인다. 세 작가가 선사하는 일상 풍경은 잿빛 도시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썬갠 듯이 되어 줄 것이다.
문의 (02)542-4964 www.leeugeangallery.com



바로 잡습니다

2019년 4월호 116~125P에 게재된 기사 [하몬 HAMONN] 중, 건축주 박재영, 박선미 2인이 제공한 내용과 디자인 참여자로서의 사실이 누락되었기에, 기사를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